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물 절약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자

다 막대한 지원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7월 장마철에 강수량 많아 댐이나 보의 물을 채워야 하는 데 올해는 중부지방을 제외하고 남부지방은 비는 왔지만, 강수량이 적어 지금 상수원인 저수지 물이 바닥에 가깝다. 이것을 공개한다면 물을 절약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온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물 절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경우 8, 9월 내린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됐으나 광주를 비롯해 전남 등 일부 지방은 여전히 지난해 겨울부터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골의 웅덩이 샘물은 말랐다.

올해는 겨울과 봄철 및 여름 가뭄이 지속되며 장마 기간인 여름에도 비의 양은 극히 적었다.

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강우량이 1천500mm로 저수율이 약 80%였지만, 올해는 669mm가량으로 저수율이 겨우 35%로 평년 대비 강우량이 절반가량에 그쳤다.

광주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원지에 물이 고갈돼 시민들의 고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물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2021년 광주 상수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국민 1

인당 1일 급수량은 328ℓ로 프랑스(214ℓ)와 영국(279ℓ) 등 선진국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물과 소비가 지속되면 향후에는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물 복지를 위해서는 수질과 수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수량이 부족한데 수질을 논할 수 없고, 수질은 좋은데 수량이 부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광주시는 낮은 저수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 및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시행하는 조류경보제가 동북호에서 아직은 발령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동북호 및 주암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와 정수장에서 수질관리 및 가정까지 공급되는 공급과정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 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으로 수질검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는 우리 지역 사회의 생활용수 등 물 절약을 통한 용수 확보 노력도 시급하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주방에서 설거지나 채소, 과일을 씻을 때 물을 받아서 씻으면 평소 사용량의 약 60% 정도의 물 절약과 세탁기는 빨랫감을 모아 두었다 세탁하면 약 30%, 샤워 시간을 줄이고 양치질할 때 물컵을 사용하면 평소 사용량의

60~70%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주방에서의 물과 화장실에서의 물인데 대부분 가정의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돼 있고 12ℓ의 물통이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물 절약을 위해 화장실 물통에 벽돌 한 장씩 넣어 물을 절약하자고 했다.

광주시 진월동 거주 서영섭(93세) 씨는 화장실 물통 절수기 발명으로 발명특허를 획득했으며 설치돼 있는 물통에 절수기를 삽입하면 12ℓ의 물통에서 4ℓ(1/3) 물로 노폐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획기적인 절수 장치로서 설치된 물통에 발명품 절수장치를 하면 벽돌 16장의 물이 절약된다.

전국적으로 화장실 물 절약을 위해 환경청에 화장실 절수장치를 건의했으나 환경청 관계자는 절수 등급제를 시행해(1등급 40, 2등급 50, 3등급 60) 가장 절수효과가 좋은 1등급 절수기를 권장하지 않고 2~3등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화장실에서의 물 절약을 위해 1등급(40) 절수기 장치를 해 물을 절약했으면 한다.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물 아끼기에 동참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창의력을 발휘해 혼연일체가 돼 물 절약 대책을 세우 추진해 우리가 직면한 가뭄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독자기고

화재예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이달승 여수소방서장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경 여수시 화양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 근처 주택 천장에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화재사실을 알게 된 거주자가 119로 신고해 큰 화재를 막은 사례가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119라고 생각한다.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를 분석해 본 바, 지난 2018년 화재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겨울철이라고 해서 화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계절에 비해 난방용품 등 화기취급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므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대책 중 하나는 아무래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아닐까 싶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화재 및 안전 위해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여수소방서에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겨울의 문턱에 있는 11월 한 달 동안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소방인 모두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이 위급하고 불편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 제일 먼저 달려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과 수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7개국에 속하지만, 한해(旱害) 극복을 위한 수자원 보호와 관리에 힘써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쓰기 위해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들어 수자원을 저장해 사용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시설이 잘 돼 있어 선진국 복지국가라 자랑한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의 고마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물을 아껴 쓸 줄을 몰라 해마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피브로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